

#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 한·중·일의 조절효과

박재수\* · 김태영\*\* · 황준화\*\*\*

---

## 目次

---

1. 서론
  2. 경제적 지역주의에서 조절효과와 한·중·일
  3. 분석방법
  4. 한·중·일의 조절효과 분석
  5. 결론
- 

## 1. 서론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중화주의 중심론에서 일본제국주의의 대동아공영론까지 거슬러 올라가 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세계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본격적 관심은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따른 각국의 독립, 냉전체제, 동서 및 남북 분배 갈등 속에서 나타났다. 또한 1990년대 들어, 냉전체제의 종결, 미국의 후원, GATT/WTO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경제발전 및 민주화의 부상, 동아시아 국가 간의 의존도 상승으로 인한 지역주의 통합이 시도되면서 더욱 증대되었다. 최근에는 1997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한·중·일의 역할론이 제기되면서 지역주의 논의는 심화되어 왔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더불어서, 동아시아의 내부적 상황을 보면 세계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형태와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지역

---

\*KISTI선임연구원, \*\*강릉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한남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강사

주의 동기가 파악된다. 동아시아의 초기 지역주의는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1967년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의 5개국에 의해 주도되었던 아세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1970년대에 닉슨 독트린에 의한 미국의 아시아 지역 이탈과 중국·미국 간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지역주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더구나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의 캄보디아문제, 중국-베트남전쟁, 난민문제 등 일련의 주변 사태에 의해 아세안은 군사기구화의 경향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 아시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나타났다(Petri, 2006).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이 국제통상 협력을 다지기 위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구성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아세안+3 유사)의 창설제안이 그것이다. 아쉽게도 당초부터 제외되었던 미국의 반발로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青木健·馬田啓一, 1995; Terade, 2003; He, 2003).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1997년 태국발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 간의 연쇄적 위기 및 역내경제의 의존성 확인으로 인하여 나타났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자구책을 제시하였던 IMF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회의와 불만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만의 대응책을 모색하였고,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지역주의로 확대되었다. 이에 한·중·일의 개입 정도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접하게 되었으며, 역내 국가 간 권력거리는 1990년 동아시아경제그룹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다(今川健·坂本政弘, 2001).

일례로, 한국은 1998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설립을 제안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논의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세안과 FTA추진을 합의하고, 2015년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일본은 아세안과의 무역 및 직접투자의 확대에 의한 지역경제의 통합 등에 있어 모종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왔으며, 정치적으로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의 개최를 제안하여, 2005년도에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가하는 아세안+3+3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세계와의 관계성이 깊어지고 있는 동아시아는 한·중·일의 조절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경제적 지역주의에 대해 논하고 동아시아의 방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지역주의는 물론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범위에서 접근될 수 있으며, 그 輕重을 따지자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일례로, 동아시아를 둘러싼 잠재적 군사 대국들의 협력관계는 지역주의 범위에서 여전히 거론되어야 할 이슈이기도 하

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1997년 IMF이후 한·중·일의 경제적 역할론이 제기되면서 정치 및 사회문화가 선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경제거래를 급속히 흡수하는 한편, 일본은 선진경제와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이며, 한국 또한 선진경제와 세계 10대 무역국으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가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가 한·중·일 3국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선회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대비 아세안+3의 무역관계에서 동아시아의 위치를 가늠하고, 한·중·일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경제적 지역주의에서 조절효과와 한·중·일

### 1) 경제적 지역주의 이슈

세계경제질서를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들은 경제적 지역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상품거래 중심의 무역질서에 부정적 영향, 즉 국가가 접하는 국제가격의 변화로서 교역조건(terms-of-trade effect)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거나, 특히 Bhagwati와 Panagariya(1996)가 지적한 것처럼, 경제적 지역주의가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e effect)보다는 비회원국에 대해 차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역내국간의 거래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t effect)를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다자주의적 세계경제질서의 차선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한편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적 지역주의의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는 입장과는 다르게, 최적의 다자주의보다 자유무역협정 등 쌍무적 지역주의를 원하는 국가, 특히 다자주의적 협상에서 제한된 혜택을 받는 개발도상국 및 후발경제발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긍정론이 나타난다.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선의 지역주의를 통해 그들의 후생증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Plummer, 2006; Lee and Shin, 2006). 긍정론자들은 지역경제통합이 오히려 역내 시장확대 및 경쟁촉진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표 1참조>.

<표 1> 지역통합 긍정론: 역내·역외에의 영향

지역경제통합 의 효과		내용	평가	
			회원국	역외국
정 태 효 과	무역창출 효과	역내의 무역장벽철폐에 의한 역내무역이 확대하는 효과	+	+(간접적)
	무역전환 효과	역내의 무역장벽철폐에 의한 역외의 효율적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역내수입으로 전환되는 효과	-	-
	교역조건 효과	공동관세의 설정에 의한 지역통합가맹국의 구매력이 강화되고, 역외로부터의 수입가격을 내리는 효과	+	-
동 태 효 과	시장확대 효과	역내의 무역장벽철폐에 의해 시장이 확대되고, 규모의 이익에 의한 비용저감이 가능한 효과	+	+(간접적)
	경쟁촉진 효과	역내시장 개방에 의한 국내시장에의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	+	+(간접적)

자료: 2000년도 日本 『通商白書』

따라서 세계경제와 경제적 지역주의 간의 효과는 명쾌한 것은 아닌 듯 하다.

다만, 최근의 경제적 지역주의는 역내 관계와 지역외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구도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보여준다(Harvie and Lee, 2002; Jayasuriya, 2003). 과거에 비해 세계경제의 경쟁과 협력이 일반화되었고, 더구나 발전적 경제규모와 범위를 지닌 국가 및 지역과의 국제적 거래는 인력, 기술 및 지식, 상품, 기업 등을 이동시킴으로써 당해 지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지역주의는 지역경제통합의 규모와 범위 및 역내외 국제적 거래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상승되는 복잡성의 문제와 국제적인 주요 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두려움을 지닌 국가들의 대응에서 설명되고 있다(Lloyd, 2002).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설명에 대해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한다. 국가 간의 의도적 제도로서 맺어진 협정이거나 그렇지 않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역주의에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특정 국가(또는 경제)가 존재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세계의 제반질서 및 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되는 미국(NAFTA), EU, 중국, 일본 등의 시장경제적 잠재성은 타 경제권과의 특정 협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암묵적 파워로서 그 영향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지역주의에서 쌍무협정과 같은 국가 간의 의도적 국제협력은 각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 및 산업영역을 선택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양자의 협상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가 상존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형성되며, 한편으로는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국가를 그들의 경제권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宇野重昭, 2003).

대체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국제 경제협력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선진국과의 협력이 타 개도국에게 심리적 위기감이나 불안감(또는 경쟁력 상실 우려)을 유발시키는 밴드웨건효과(bandwagon effect)나 우월한 경제권과의 연쇄협력을 일으키는 도미노효과(domino effect)에서 이해된다(Baldwin, 1993)<sup>2)</sup>. 이로 인하여 지역주의는 국가 간의 의도적 및 비의도적 국제협력의 지역경계를 넘어, 특정 국가 및 연합체와의 국제협력의 수많은 거래관계를 만드는 공부정적인 스파게티 바울효과(spaghetti bowl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Bhagwati and Panagariya, 1996; Majluf, 2004).

이것이 향후의 세계 및 지역 후생을 증진시킬지 아니면, 저하시킬지 명확한 답을 할 수는 없으나, 각 국이 처한 상황에서 역내외 간의 글로벌 통로를 형성시켜 보다 나은 가치를 지향하는 확장된 보완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인적·물적의 국제이동을 통제할 수 없거나 흡수역량이 떨어진다면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 지역주의는 개방과 시장지향적 경제의 속성을 통합하기 위한 효용화 차원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것 같다(Majluf, 2004). 한편으로는 국가 간의 의도적 국제협력과 시장스스로의 국제협력 간의 배율(倍率)을 다르게 하며 지리적인 개념 하에서, 초지역적인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 간의 집중적 연결을 둘러싼 역동적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다(Hwee, 2005; Fukagawa, 2005).

## 2) 경제적 지역주의에서 조절효과와 한·중·일

경제적 지역주의의 결합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지역주의를 의도적인 정치적 산물로서 판단할 경우와 세계 간의 자연스러운 거래과정의 비의도적 성향으로 구분할 때, 구조요인이 달라질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역주의를 일정 지역 내 국가들의 점증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 내 경제공동체로서 역내국간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상황이라면, 의도적인 제도를 분석 측정한다.

2) 그렇다고 이 현상이 참여 국가의 후생을 증진하거나 경제적 지역주의의 발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확산된 가운데 특정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 간에도 비공식적이고, 비정치적인 연성지역주의(soft regionalism)의 성향이 존재할 경우, 자연스러운 경제거래 규모와 범위를 통해서 지역주의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지역주의는 세계경제의 양과 질적인 부문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NAFTA), EU, 일본, 중국과 같은 거대 경제단위가 국제적인 新협력관계를 점증시키고 있는 현상에서 의도적 및 비의도적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예측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지역) vs. 세계 간의 의도와 비의도라는 관계 설정은 지역주의를 하나의 종속변수로 놓고 어떠한 지역주의를 만들면 좋겠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하는 것일 뿐, 경제적 지역주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한 설정관계는 아닌 듯하다. 즉 국가 간의 협력이든 시장스스로의 협력이든 간에 양자 간의 혜택적인 배율에서 정해지는 지역주의는 독립변수로서 특정 국가 및 지역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하는 목적이 있을 뿐이며, 경제적 지역주의는 전략적인 독립변수라고 하겠다(Kumar, 2005; Lee and Shin, 2006).

그 연유로 국제적인 협력이나 거래(또는 국제 네트워크) 등이 역내에 밀집되는 지역주의에는 수많은 대리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 노동(이주 및 이민), 지식, 기술, 자본, 상품/서비스, 기업, 산업, 주요 경제권, 정치적 이니셔티브, 군사, 문화 등의 이동, 그리고 특정 민족 집단의 이동 등 다양하며, 이것을 특징화하는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 정치적 협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제적 지역주의는 경제통합 및 경제블록화, 경제협력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어 왔다.

그러나 Baldwin(1993)도 밝힌 바 있지만, 기존의 지역주의에서 중심적으로 설명되어 온 지역통합협정의 심천 및 규모보다는 지역통합협정의 타이밍 및 모티베이션(여기서 타이밍은 세계와 역내 간의 특정 기회를 의미하며, 모티베이션은 외적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닌 역내의 특정 사건에 대해 스스로의 움직임을 말함)이 지역주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달리 말하면, 국제적인 거래관계의 밀집도를 의미하는 지역주의를 독립변수로 이해할 때에, 이것은 지역주의의 형성과 발전을 조정하는 조절변수의 위치에 있다는 측면이다.

이러한 설명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타이밍 및 모티베이션은 지역주의의 결합강도에 관한 내외부적 조절력을 지닌 상황구조로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주의의 결합강도를 의도적 및 비의도적으로 조절하며, 그 기능 여하에 의해 역내거래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맥락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타이밍 및 모티베이션은 다자주의

적 글로벌리즘에서 쌍무주의적 리저널리즘으로의 전환되는 타이밍 속에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의 제도적인 대체 미흡으로 인해 각국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아시아의 협력증진이라는 모티베이션이 작용한 것으로 배경이 압축된다.

이에 한·중·일 3국이 거대경제규모(및 선진경제)와 협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아세안+3 신지역주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한·중·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과의 지역경제통합협정이 동아시아의 후생을 증진하는데 직접적인 것은 사실이나,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와의 협정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EU, 또는 여타 경제권 간의 세계 지역주의 구도를 자신들에게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게임 여부에 의해 세계와 소통하는 동북아 3국의 입지가 정해질 것이며, 동북아 3국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동아시아의 후생증진을 위해 무조건적인 경제협정보다는 아세안과 세계 간에 서서 저울질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가 역내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계 지역주의의 구도 측면에서 전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역으로 동북아 3국은 세계 지역주의 구도에 만족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거래관계에서 한·중·일의 영향력에 관한 결론은 조심스럽다. 동아시아는 과거 20년 동안, 역내무역이 양적 및 질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지역 간 무역결합도의 상승(Sohn, 2002; Kawai, 2005; Lee and Shin, 2006)과 비즈니스사이클의 유사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Rana, 2007). 일례로, 아시아 각국 간의 역내의존성을 산업내무역지수(Intra Industry trade index)를 통해 보면, 1985년에서 2001년 동안의 아시아 전체 제조업에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각각 0.638→0.746, 0.223→0.509, 0.588→0.738, 0.379→0.484, 0.473→0.692로 증가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 또한 0.271→0.498, 0.322→0.365, 0.199→0.462로 상승하였다.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는 0.260→0.384로 EU의 0.305→0.462보다는 작지만, NAFTA의 0.275→0.337보다 증가폭이 높아졌다(World Bank, 2003).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를 세계와의 교역 관계 속에서 비교하면 역내무역의 증가만큼이나 성장해오지는 않았다. 교역액은 1998년 17.58%에서 2002년 19.62%로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세계 GDP대비 동아시아 GDP는 21.0%에서 17.58%로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비록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주장되고는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는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보다는 동아

시아만의 자찬론이 아닌가 한다. Baldwin(2006)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세계적 범주에서 볼 때, 허약한 지역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도 있다. 그 배경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역내거래의 증가가 세계 대비로 볼 때, 동아시아의 경제적 후생증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세계와 크게 소통하고 있는 한·중·일에 의해서 조절될 것이란 가정은 가능할 것 같다.

가설1. ASEAN과 한국과의 역내무역에 의해 ASEAN+3의 경제적 후생은 조절될 것이다.  
 가설2. ASEAN과 중국과의 역내무역에 의해 ASEAN+3의 경제적 후생은 조절될 것이다.  
 가설3. ASEAN과 일본과의 역내무역에 의해 ASEAN+3의 경제적 후생은 조절될 것이다.

## 4. 분석방법

### 1) 척도

종속변수로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후생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후생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소득 면에서 측정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을 의미한다. 그 측면에서 해외순소득을 포함시키지 않는 GDP개념을 활용하여 ‘세계 총GDP 대비 ASEAN+3의 GDP(국민총생산)과 1인당 GDP’를 사용한다.

$$\text{경제적후생Ratio1} = \frac{\text{ASEAN+3의 전체GDP}}{\text{세계전체GDP}}$$

$$\text{경제적후생Ratio2} = \frac{\text{ASEAN+3의 1인당GDP}}{\text{세계1인당GDP}}$$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Eichengreen과 Frankel(1995)이 역내무역을 측정하여 지역주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과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지역주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대리변수로서 역내거래 중 역내무역을 활용한다(Burfisher등, 2003). 이는 ‘ASEAN+3의 역내외 전체무역 대비 ASEAN+3의 역내무역’을 측정함으로써 결합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text{역내무역Ratio3} = \frac{\text{ASEAN+3역내무역}}{\text{ASEAN+3역내외무역}}$$

그리고 조절변수는 ‘세계무역에서 ASEAN+3의 역내외 무역전체 대비 ASEAN+3의 역내외 무역전체에서 ASEAN과 한·중·일 간의 역내무역’을 계산한 뒤, 한·중·일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조절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만큼 3국의 역할을 파악할 것이다.

$$\text{한국Ratio4} = \frac{\text{ASEAN+한국}/\text{ASEAN+3역내외무역전체}}{\text{ASEAN+3역내외무역전체}/\text{세계무역}}$$

$$\text{중국Ratio5} = \frac{\text{ASEAN+중국}/\text{ASEAN+3역내외무역전체}}{\text{ASEAN+3역내외무역전체}/\text{세계무역}}$$

$$\text{일본Ratio6} = \frac{\text{ASEAN+일본}/\text{ASEAN+3역내외무역전체}}{\text{ASEAN+3역내외무역전체}/\text{세계무역}}$$

분석은 첫째, ASEAN+3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활성화된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우선 역내무역의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만약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난다면, 1997년 이후의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분석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의 변화가 클 것이기 때문에, 1997년 이전 데이터가 최근의 특징을 반영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기대되며, 1997년 이후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 2) 표본과 분석기법

표본은 국제연합무역개발협회의에서 제공하는 UNCTAD통계On-line에서 GDP 및 역외무역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아세안+3의 역내무역에 관한 데이터는 UNCTAD, 2005년 아세안 백서,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상술한 데이터는 간혹, 국제기구(WTO, IMF, WorldBank, ADB), 그리고 논문 및 보고서 간 통계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차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각 지표에서 추출할 수 있는 년도 데이터가 달라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1993년-2004년까지만 정리하였다. 추출 및 계산된 표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조>.

<표 2> 분석 기초 데이터(표본) (단위: 백만 달러, 1인당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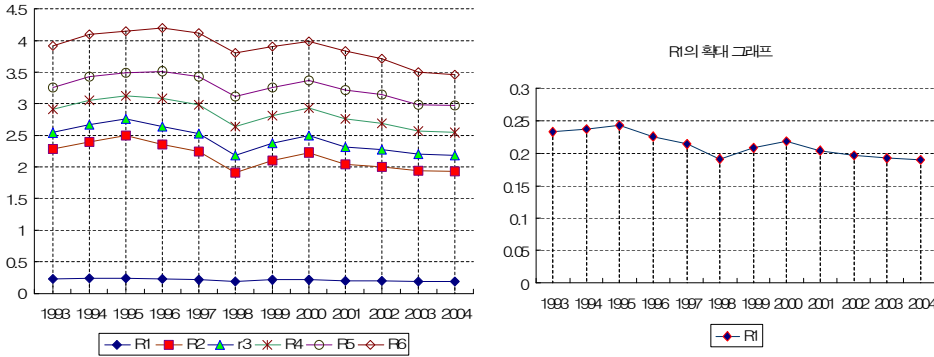
경제권	지표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세계	총GDP	25008957	26676080	29418298	30047421	29906108	29697776	30814186	31624466	31362750	32570885	36526064	40960425
	1인당 GDP	4522	4753	5168	5205	5110	5007	5128	5196	5089	5221	5785	6410
ASEAN+3	총GDP	5807716	6322075	7155631	6790554	6410413	5690871	6434390	6918074	6373293	6403731	7002224	7763647
	1인당 GDP	9294	10303	11638	11088	10333	8621	9700	10432	9386	9412	10165	11189
세계	총무역	7613296	8684261	10394480	10878229	11243609	11108238	11546185	13068763	12557853	13082188	15175061	18220267
ASEAN+3	역내외무역	1409388	1650598	1996780	2046642	2090945	1829747	2015540	2465558	2281436	2451009	2930362	3681009
ASEAN+3	역내무역	357581	446971	528240	596169	616438	487412	538784	688809	624166	662986	738025	942070
ASEAN+한	역내무역	95718	121524	143701	169787	177355	139548	157564	199194	180636	193156	211428	266342
ASEAN+중	역내무역	91309	116546	137111	161876	172629	142500	155951	201667	186989	207367	236259	310574
ASEAN+일	역내무역	170553	208901	247427	264506	266453	205363	225269	287947	256541	262463	290337	366153

주: 소수점이하 절삭.

샘플의 특성은 상술한 비율(1에서 6) 계산 결과에서 논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의미성을 찾아보고자 세계 대비 역내의 거래

활성화를 파악하는 만큼, 연도별 변화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1>과 같이  
역내 거래와 지역주의 간의 의미는 약한 편이다.

<그림 1> Ratio(1-6)의 특징도표



세계 대비로 볼 때, 1997년 전후의 비율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997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지역후생이나 역내무역을 끌어올리는 역할은 없었다. 각 비율의 상관관계는 연도별로 명백하거나와 1997년 이후로 지역주의에 의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야 하지만,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의 활성화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가속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거래활성화나 지역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만한 결과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한중일의 역할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1997년 이후 시간의 흐름을 감안하여 예측값을 구해서 세계 대비 비중의 증감 상황에서 한중일의 역할(R3에 대한 R3\*R4, R3\*R5, R3\*R6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분석기법은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 최근의 자료에 가중값을 주고 과거로 갈수록 가중값을 줄여나감)을 활용하여 각 데이터의 시간의 변화분을 감안한 예측값을 만든 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중일의 역할(가설검정)은 상호작용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F비율통계량이 F비율임계치보다 클 때, 집단 간의 차이에 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4. 한·중·일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내거래(무역 등)와 후생 간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지역주의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세계 대비 역내무역의 확대와 한·중·일 3국의 역할을 파악해 보면, 목적의 달성여부를 가늠할 것이란 기대 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회귀식을 통한 한중일의 상호작용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비율의 감소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지수평활방법 중 ‘지수모형’ 추세성분을 활용하여 적합한 선형추세모형을 찾았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적 지역주의에서 한·중·일의 위치를 감안하여 1997년 이후 세계 대비 아세안+3의 역내무역거래 중심의 상호작용이 아세안+3에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표 3 참조>.

<표 3> 가설검증(1997년 이후 자료 기반으로 한중일 조절효과 측정)

	표준화β	t	sig.	F비율 통계량	F비율 임계치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2,3의 모델1a(Ratio3→Ratio1)				중속 총 GDP		
constant		.826	.440	F: 8.676(sig. .026), R-Square: .591 DW: 1.702		
Ratio3	.769	2.946	.026			
F: 8.676(sig. .026), R-Square: .591 DW: 1.702						
가설 1,2,3의 모델1b(Ratio3→Ratio2)				중속 1인당 GDP		
constant		-.252	.810	F: 14.116(sig. .009), R-Square: .702 DW: 1.945		
Ratio3	.838	3.757	.009			
F: 14.116(sig. .009), R-Square: .702 DW: 1.945						
가설 1 모델2a(Ratio3*Ratio4→Ratio1)				한국		
constant		.336	.750	F: 4.233(sig. .084) R-Square: .629 DW: 1.462 VIF: 3.220	0.51	기각
Ratio3	1.058	2.163	.083			
Ratio3*Ratio4	-.348	-.711	.509			
가설 1 모델2b(Ratio3*Ratio4→Ratio2)				한국		
constant		-1.026	.352	F: 10.073(sig. .018) 조정R-Square: .801 DW: 1.710 VIF: 3.220	2.53	기각
Ratio3	1.307	3.654	.015			
Ratio3*Ratio4	-.566	-1.581	.175			
가설 2 모델2a(Ratio3*Ratio5→Ratio1)				중국		
constant		.951	.385	F: 7.029(sig. .035) R-Square: .738 DW: .925 VIF: 2.750	2.82	기각
Ratio3	1.275	3.357	.020			
Ratio3*Ratio5	-.635	-1.671	.156			
가설 2 모델2b(Ratio3*Ratio5→Ratio2)				중국		
constant		-.405	.702	F: 26.203(sig. .002) R-Square: .913 DW: 1.018 VIF: 2.750	12.4	채택
Ratio3	1.446	6.605	.001			
Ratio3*Ratio5	-.762	-3.482	.018			
가설 3 모델2a(Ratio3*Ratio6→Ratio1)				일본		
constant		.249	.814	F: 4.132(sig. .087) R-Square: .623 DW: 1.545 VIF: 3.005	0.42	기각
Ratio3	1.022	2.146	.085			
Ratio3*Ratio6	-.309	-.650	.544			
가설 3 모델2b(Ratio3*Ratio6→Ratio2)				일본		
constant		-1.010	.359	F: 8.902(sig. .023) R-Square: .781 DW: 1.859 VIF: 3.005	1.74	기각
Ratio3	1.236	3.404	.019			
Ratio3*Ratio6	-.487	-1.342	.237			

주: 3개의 상호작용모형에서 Ratio1과 Ratio2는 공통(독립변수가 1개이므로 영향력은 같음).

F검정을 통한 가설검정 결과, 가설 2의 2b만이  $\alpha=0.05$ 에서 F비율통계량  $2.41 > F$ 비율임계치 6.61보다 크기 때문에 상호작용효과가 인정되어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아세안+중국의 역내무역이 아세안+3의 1인당 GDP 증감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아세안+3의 총GDP 및 1인당 GDP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 결과를 보면, 세계 대비 아세안+3의 경제적 후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3의 역내외 전체무역 대비 역내무역은 총GDP( $\beta=0.796$ , sig. 0.026)와 1인당 GDP( $\beta=0.838$ , sig. 0.009)에 유의한 긍정적(+)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997년에서 2004년까지의 역내무역은 세계의 지역주의 움직임보다는 활발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감소에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rightarrow$  판단해야 함).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1인당 GDP의 증감을 조절하는 영향력이 네가티브(-)( $\beta=-0.762$ , sig. 0.028)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감소추세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한국과 일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무역거래 차원에서 파악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확대되어 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부연하면, 역내무역에 있어서 아세안은 중국의 역할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주장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Ong, 2003; Yunling, 2005). 이 결과가 중국을 포함한 아세안+3의 경제적 후생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자국에게 긍정적 영향력으로 돌아갔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아세안+3의 교역량에서 중국의 변화를 1993년과 2004년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세안+중국은 91,309(백만 달러)에서 310,574(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중국은 그동안 3.4배의 증가하였다. 동아시아 교역에 있어서는 아세안보다 중국의 주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제적 후생이 중국으로 회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이 아세안+3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쌍무적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형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에 는 힘들다고 하겠다.

일본은 한편, 경제적으로 대국이기는 하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경제 질서에 순응해오는 현재의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또는 일본에서는 공동체로 표현)는 일본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 중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아세안+일본은 1993년에 비해 2004년까지 170,553(백만 달러)에

서 365,153(백만 달러)로 약 2.1배가 증가하였던 바,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과거부터 규모가 큰 편이었다. 더구나 IMF이후 동아시아 금융협력 시스템의 구축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3의 경제적 후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맥락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교역활동이 아세안+3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세계적인 교역을 위한 배경으로 동아시아의 교역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은 F검정이 유의하지 않아서 조절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역내무역에 한하여서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형성에의 영향력을 판단하기 힘들다. 의미를 찾는다면, 아세안+한국 교역량은 1997년 95,718(백만 달러)에서 2004년 266,342(백만 달러)로 약 2.8배의 증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중국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 영향이 회귀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영향력 있는 역내거래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 V. 결 론

과거의 지역주의는 ‘관세통합’ 전후를 기준으로 지역경제통합의 심천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역의 경제규모도 지역경제통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지역주의 그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연구는 아니었다. 하지만 Baldwin(1993)은 “각 국가들은 지역적 개방시장을 왜 열망하는가, 그리고 다자적인 행동을 왜 혐오하는가?”를 물어보면서 지역경제통합의 심천과 규모보다는 글로벌리즘 및 세계의 지역주의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역내거래와 지역의 경제적 후생, 그리고 지역주의의 발전 간의 의미를 제고해보려고 하였다. 이론적인 경향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밴드웨건 효과에 의한 지역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거나 스파게티 바울효과에 휩싸인다면 지역주의는 부정적인 결과를 또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경제적 거래(무역통계)를 세계 대비로 분석하여 현 위치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배경 하에,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의 가능성은 한·중·일 3국의 역할, 즉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무역에 있어 아세안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아세안+3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조

절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계 대비 아세안+3의 경제적 후생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지만, 그 동안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역내거래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세계 대비로 볼 때, 동아시아 역내거래는 증가하였지만, 경제적 후생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Yoshida(2004)와 Baldwin(2006)의 논의를 빌리자면,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시도에 비해 지역주의를 이끌만한 선도그룹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비전 또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외부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주장에 공감의 간다. Katzensten(2000) 또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세계의 경제적 구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이해관계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무시할 수 없을 듯하다. 이론적 경향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역주의는 글로벌 통로를 필요로 한다는 가정에 의하면, 역내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미국(또는 NAFTA), EU 등과 같은 거대경제규모와의 통로를 같이 열어두어야 하는 이중적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한·중·일의 조절효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즉 자국의 이익과 동아시아의 공동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과제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적 지역주의가 의도적인 제도신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자연스러운 전이효과에 의해 창출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내부의 자체적인 관계보다는 세계의 변화 속에서 위치가 정해지지 않을까 한다.

## 【参考文献】

- 青木健、馬田啓一(1995), 『アジア太平洋の新しい地域主義』, 日本評論社.
- 今川健、坂本政弘(2001), 『地域主義と正解経済』中央大学出版部.
- 宇野重昭 (2003), 『北東アジアにおける 中国と日本』 国際書院.
- 日本通商産業省(2000) 『通商白書2000』 .
- Baldwin, R.(1993),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NBER WP.4465.
- Baldwin, R.(2006), *Managing the Noodle Bowl: The Fragility of East Asian Regionalism*, CEPR No. 5561.
- Bhagwati, J. and A. Panagariya(1996), "Preferential Trading Areas and Multinationalism: Strangers, Friends, or Foes?," in J. Bhagwati, and A. Panagariya(eds), *The Economics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EI Press.
- Burfisher, M.E., S. Robinson, and K. Thierfelder(2003), *Regionalism: Old and New, Theory and Practice*,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IATRC) Conference.
- Eichengreen, B. and J.A. Frankel(1995), "Economic Regionalism: Evidence from Two 20th Century Episodes,"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 Finance*, 6(2): 89-106.
- Fukagawa, Y.(2005), "East Asia's New Economic Integration Strategy: Moving Beyond the FTA," *Asia-Pacific Review*, 12(2): 10-29.
- Harvie,C. and H.H. Lee(2002), *New regionalism in East Asia: How Does it relate to the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University of Wollongong Department of Economics WP02-10.
- He, B.(2004), "East Asian Ideas of regionalism: a Normative Critiqu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8(1): 105-125.
- Hwee, Y.L.(2005), *Realism and Reactive Regionalism: Where is East Asian Regionalism Heading?*, UNISCI Siscussion Papers, may 2005.
- Katzensten, P.(2000), "Regionalism and Asia," *New Political Economy*, 5(3): 353-368.
- Jayasuriya, K.(2003), "Introduction: Governing the Asia Pacific-beyond the 'New Regionalism,'" *Third World Quarterly*, 24(2): 199-215.
- Krugman, P.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73.
- Kawai, M.(2005),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Progress and Challenges," *Journal of Asian Economic*, 16: 29-25.
- Kumar, N.(2005), "Towards a Broader Asian Community: Agenda for the East Asia Summit," RIS-DP # 100.
- Lee, Jong-Wha and Kwanho Shin(2006), "Does Regionalism Lead to more

Global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17: 283-301.

Lloyd, P.J.(2002), *New Regionalism and New Bilateralism in the Asia-Pacific*,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Singapore), Visiting Researchers Series No.3.

Majluf, L.A.(2004), *Swimming in the Spaghetti Bowl: Challengers for developing Countries under the "New Regionalism*, U.N. Policy Issu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Commodities, Study Series No.27.

Plummer, M.G.(2006), *Best Practices" in Regional Trading Agreements: An Application to Asia*, Leverhulme Centre Seminar 2006.12, University of Nottingham.

Ong, E.C.(2003), "Anchor East Asian Free Trade in ASEAN," *The Washington Quarterly* 26(2): 57-72.

Petri, P.A.(2006), "Is East Asia Becoming more Interdependent?," *Journal of Asian Economics*, 17: 381-394.

Rana, P.B.(2007), "Economic Integration and Synchronization of Business Cycles in East Asia," *Journal of Asian Economics*, 18: 711-725.

Sohn, B.H.(2002), "Regionaliz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in East Asia and Prospects for Further regional Integration,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7(2): 160-181.

Terada, T.(2003), "Constructing and 'East Asian' Concept and Growing regional Identity: from EAEC to ASEAN+3," *The Pacific Review*, 16(2): 251-277.

Yoshida, T.(2004), "East Asian Regionalism and Japan," IDE APEC Study Center, WP 03/04 No.9.

Yunling, Z.(2005), "Emerging New East Asian Regionalism," *Asia-Pacific review*, 12(1): 55-63.



要 旨

**East Asia Economic Regionalism: Moderator Effects of  
Korea · China · Japan**

This paper reviews the prospects of new economic regionalism in the East Asia. The concept of new economic regionalism goes beyond open regionalism that integrated only with more countries joining in the context of open. In the context, We analyses the interaction of ASEAN+3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the influence of the China, Japan and Korea. The results tends to rise a new platform for the trade between China and the ASEAN in East Asia. Nevertheless, Chinese international trading network still poor impacts on the ASEAN+3 and the outside world, United States and EU in particular.

キーワード : ASEAN+3, economic regionalism, interaction  
moderator effects, east asia, international trade

투 고 : 2008. 2. 29  
1차 심사 : 2008. 3. 15  
2차 심사 : 2008. 3. 29

住 所 : (305-806)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11  
電 話 : 042-869-0693, 019-379-7188  
e-mail : jaesuel66@kisti.re.kr